

가정상담

2003

10

통권 242호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족정책 - 부부평등과 자녀 노인의 복지

4 • 0 달의 메시지

5 • 7 획

비혼모 가정의 법적 권리와 복리

3 • 특집

호주제 폐지 평등가족실현 시민 한마당

4 • 칼럼 결혼과 인생 (0)

15 • 인터넷 상담

16 • 상담소 소식

17 • 지부한마당

18 • 지부 소식

19 • 상담통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법원 지정 가정보호사건
행위자 상담 수탁기관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780-5688/9

<http://www.lawhome.or.kr>

상담
안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기관으로 가난하고
법률을 잘 모르는 분을 위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가정생활에 필요한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서
전문상담원과 변호사들이
상담, 화해 · 조정, 무료대서,
무료변론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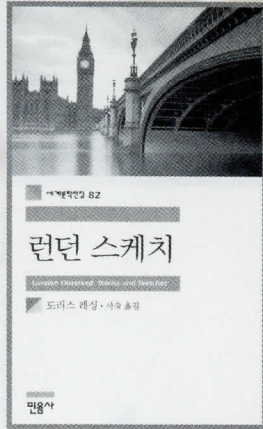
월~금 : 오전 10시 ~ 오후 5시
야간상담 : 월요일 오후 6시 ~ 9시



법률구조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당동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선동2동 402-8호
TEL (02)2238-6 5 5 4
월~금 오전 9시30분 ~ 오후 4시30분
토요일 오전 9시30분 ~ 오후 12시까지
법률상담 · 가정상담 · 자녀상담

런던 스케치

도리스 레싱 지음
서숙 옮김
민음사, 2003년 발행



영국 작가 도리스 레싱은 올해 84세로 이란에서 태어나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성장했으며 1949년부터 영국에서 작가 생활을 시작했다. 노벨 문학상 수상 후보로 자주 거론되는 도리스 레싱은 페미니즘, 인종문제, 탈식민주의, 환경과 핵문제 등의 주제를 다루면서 현대 사회의 모순과 현대인의 다양한 갈등 그리고 그 상관관계를 통찰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자아 소외 등 여성들의 복잡한 내면을 직시하며 파헤친다.

「런던 스케치」는 단편 18편의 작품집으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런던의 일상을 세밀하게 스케치하고 있다. 카페 앞의 참새들, 공원의 동물들,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 지하철, 병원의 응급실, 장미정원... 아름답고 세련된 도시지만 자기방어와 주위와의 단절 속에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모습은 쓸쓸하다.

「진실」에서는 중년의 여자와 남자의 전화통화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독특하고 모호한 대화로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한 동안 대화가 계속되면서 이들은 이혼한 부부의 각기 연인임이 드러나고 그들의 새로운 사랑은 희망에 차있지만 왠지 불안하다. 이혼은 했지만 그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부부와 그들의 연인들은 런던 교외 별장에 머물면서 각자의 사랑을 키우려한다. 이혼한 부부들이 각자의 연인들과 주말을 함께 보내는 정서가 런던과 서울의 거리만큼 생소하지만, 전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자녀를

항상 보살펴야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자의 본성 등 인간의 기본정서는 비슷하다.

「원칙」은 런던의 좁은 도로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이기심을 그리고 있다. 붉은 배를 운전하는 비합리적인 남자와 양보하지 않으려는 푸른색 에스코트 여자 운전자와의 신경전이 벌어진다. 주위의 차들이 경적을 울려대지만 서로 상대방이 양보하기만을 바라는 두 운전자로 인해 결국 도로는 혼란에 휩싸인다.

「데비와 줄리」에서 줄리는 한 때의 불량녀로 임신한 10대의 소녀로 가출하여 지하분한 창고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한 마리의 개만이 이 과정을 지켜본다. 소녀는 피투성이 아이를 전화부스에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샌드위치를 먹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는 갓 태어난 여자아이가 발견되어 병원에 있다는 TV 뉴스를 담담하게 보고 있다. 부모에게서 제시 이모가 미혼모였다는 새로운 사실을 듣고 줄리는 학교를 마치면 아이를 찾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한다. 소녀의 관점에서 쓰여진 건조한 필체의 상황 묘사가 공포영화처럼 섬뜩하다.

「흙구덩이」는 자신과 너무도 비슷해서 편했던 남편으로부터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이혼 당하고 비통함과 원한에 차있었으나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 현재 전 남편이 방문하여 다시 혼란에 빠진 이혼녀의 이야기이다.

그 외 자신의 딸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파키스탄 부인의 절대적 모성(장애인의 어머니), 삶의 가치관이 다른 자매의 각기 다른 삶의 방식(로맨스 1988), 불화한 모녀가 세월이 지나 화해하는 모습(장미밭에서) 등 작품들은 사소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주제들은 가볍지 않으며, 여성들의 다양한 심리와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 도시인의 모습을 예리하게 직시하고 있다.

김 동 자 도서실장

2003년 8월 자원봉사자

현관 안내 해 주신
강신일, 강영봉, 고광례, 박찬숙, 엄안나, 오영순, 이상욱, 이수옥, 이옥순, 이현숙, 전덕열, 전원순, 함화영, 홍순호, 홍진범, 황은선 님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고옥주, 김남숙, 김인숙, 김정혜, 김희경, 노희자, 도은영, 박선화, 백미도, 송미현, 안현숙, 유문숙, 윤경숙, 이봉욱, 이승민, 한경준, 한정희, 함영익, 황인경 님

도서실 작업을 도와주신
이경실, 임은하, 엄희정, 유경내, 김지현, 조경희, 강미영 님

교육원을 도와주신
박요순 님

주간상담을 해 주신
한수자 선생님, 최영동, 장보식, 이길연, 최재영, 홍명호, 권기섭, 김경환, 이호창, 장정환, 이석준 변호사 님

야간상담을 해 주신
고영소, 임주용, 김정임, 홍승기, 김형완, 문영택, 길기관, 이남진, 전성환, 배삼희, 이교림 변호사 님

후원

평생회원이 되신 분
고옥주 님

일반회원이 되신 분
김진혜, 문명경, 한기중, 이선희, 한상숙 님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남산교회, 여의도 동사무소, 배삼희, 최영룡, 오은경, 손기순 님

도서후원금을 주신 분
이쌍희 18, 25기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2천원씩 또는 년 2만원, 평생회원은 3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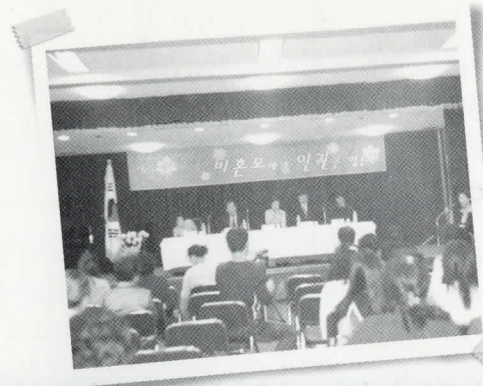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은행 101-50446-244
우리은행 085-003398-01-006

연락처 780-5688 사무국

가정법률상담소

상담소에서 한 일



▲10월 9일, 비혼모 가정의 법적권리와 복리를 위한 심포지엄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한마당



▲호주제폐지를 위한 한마당으로



▲국회앞으로 행진



▲상담소에서 진행한 호주제 바로알기 프로그램



▲국회 앞 마무리 집회 I



▲호주제폐지를 위한 서명



▲국회 앞 마무리 집회 II